

신앙 성장 시리즈 18

##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Studies in Contrast : The Doctrine of Salvation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 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1.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	9
2.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없습니다 .....	14
3.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19
4. 구원은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 계속되어야 합니다 .....	24
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29
6.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34
7.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습니다 / 어렵습니다 .....	39
8.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	45
9.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	50
10.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	55

##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사람은 불행하게도 균형을 잃은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 철저하게 영성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균형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양에 비교했습니다. 말도 소도 개도 똑바로 갈 수 있으나 양만은 똑바로 가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방향감각에 장애가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새로 태어난 후에도 즉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지난 2천년 동안 심지어 신학계에서도 나타나 균형을 잃고 신학적 논쟁과 신학과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

심스럽게 전체적으로 읽고 연구해 보면 성경적 신앙은 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 발행하는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책자는 우리 신앙을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균형 있는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의 내용은 주로 구원에 관한 균형있는 가르침입니다만 지난번에 출판한 [균형있는 가정생활] 책자와 함께 이 책자를 읽으시는 [오늘의 양식]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책자가 출판되기까지 헌신해 주신 [한국오늘의양식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의 수고가 독자들과의 균형있는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 상 복 목사

## 구원론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쁨과 슬픔, 부드러움과 강함, 독립성과 종속성, 전쟁과 평화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변화하는 환경과 필요성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1-4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 출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 3:11). 성경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부수게도 하고 세우게도 하며,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며, 치유 받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 상반되는 진리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에 영적 성장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RBC의 선임 편집위원인 허브 밴더 룩트 목사님이 상반되는 성경의 개념들을 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행 20:27)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1

##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21).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9).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1970년대 초에 시작된 거듭나기 운동의 파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자신이 거듭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인, 정치가, 사업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의적으로 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빠졌던 옛 생활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용이 없는 불분명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1.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21).
2.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9).
3. 바울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

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전 12:3).

###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수님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 7:21).
2.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언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 7:22-23).
3.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눅 6:45-49).

### 해설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인용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21)는 말씀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롬 10:9) 바울의 말씀은 누구든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확신과 고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전 12:3).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행함 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복을 빌기 위해 “주여,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만 믿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 7:21-23).

믿음은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지식에 국한된 믿음이나 감정에 의한 헌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한번 실험삼아 종교생활을 해 본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

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이유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거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 적용

-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행 2:21)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귀중한 첫 걸음입니다 (롬 10:9-10).
- 우리는 기적이거나 다른 놀라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구원의 확신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마 7:21-23).
- 우리 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눅 6:45-49).

##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없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눅 18:13,14).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막 10:21).

어떤 사람이 RBC의 상담자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찰스 콜슨은 어느 한 폭력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찬송가의 가사 “내 모습 이대로”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예수믿는 깡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1. 정직하지 못하다는 나쁜 평판의 직업을 가진 세리는 성전에 갔을 때 자기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변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겸허한 간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눅 18:13,14).
2.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는 자기의 삶을 씻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눅 23:42).
3. 바울이 말한 “일을 하지 아니 할지라도 믿는 자”(롬 4:5)에게 허락되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없이도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1.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한 젊은이에게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0:21).
2.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과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눅 18:14).
3. 예수님은 그를 좇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눅 9:23; 14:26).

### 해설

예수님께서 말한 세리의 비유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이미 그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강도를 받아주셨

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고, “일을 아니할 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롬 4:5). 다시 말해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도 그 생활이 경건해지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0:21, 누가복음 9:23, 14:26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어 제자로서의 삶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번개 뒤에 천둥이 반드시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  
가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 결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적용

-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다면,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죄의 삯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사실을 확신하여도 됩니다.
- 우리의 선행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  
믿음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롬 4:3).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 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1).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14,24,26).

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였으나 곧 바로 옛 사람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랍도 역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삶이 곧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하자 그는 마음이 흔들려 넘어졌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후회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술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에서 계속하여 졌습니다.

랍은 자신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가 야고보서 2장을 인용하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동료는 술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랍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도 역시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1.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롬

4:1-5).

2.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요 1:12,13; 3:16; 5:24; 6:40; 20:30,31).
3. 사도행전은 사람이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행 8:26-40; 10:44-48; 16:30,31).
4. 바울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롬 5:1; 갈 3:1-14,26-29; 엡 2:8-10; 딤편 1:15-17).

###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 7:21).
2. 마귀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약 2:19).
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약 2:20,26).
4.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약 2:20-25).
5. 열매가 없는 믿음, 곧 마음가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 7:15-20; 요 15:1-8; 갈 5:22-24).

## 해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요 3:16).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창 22)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보여 주었고 그것으로 30년 전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창 15:6).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을 때에도 자신의 믿음이 진실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 2:1-11; 히 11:31).

참된 믿음은 선한 일을 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지만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 결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는 선한 행위입니다. 외적인 증거 없이는 믿음의 진실성은 의심스러운 것이 됩니다.

## 적용

- 불완전한 생활과 계속 죄를 짓는 생활로 스스로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세례 받기, 교회 다니기, 선행 등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지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4

구원은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 5:24).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 1:13).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벧전 2:2).

마이크는 술을 많이 마실 뿐 아니라 세속적인 성격에다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비록 거친 면이 남아있긴 했으나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개종한 뒤 몇 주만에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마이크의 장례식에서 “마이크는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이 마이크의 옛 친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마이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같은 목사님이 한 노부인을 찾아 갔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에 지지 않고 좋은 간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녀에게 목사님은 주님께서 그녀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중에 있다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18 “구원을 얻은 우리” 라는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이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순간에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한 목사님은 어쩌서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이 노부인에게 “구원을 얻을 것” 이라고 말했을까요?

## 구원은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Salvation is once for all)

1.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온전히 새로운 설 자리를 얻습니다 (롬 5:1,2; 고후 5:17).
2.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 불립니다 (벧전 1:23).
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후사의 지위를 누립니다 (롬 8:15-17).
4.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롬 8:30) 보이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빌 3:20)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 옮기셨으니” (골 1:13) “함께 …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엡 2:6) 주셨습니다.
5.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전 6:19)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고전 12:13)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습니다 (엡 4:30).

##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Salvation is Continuous)

1. 구원은 영적인 유아기에서 성숙기로 이끌어 가는 과정입니다 (벧전 2:1-3; 벧후 3:17,18).
2.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 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 2:12).
3. 우리의 양자 될 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았을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롬 8:23-25).

4.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요 5:24) 우리 믿음의 마지막 열매로 영생을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롬 6:22; 벧전 1:9).
5.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고 언젠가 바로 그 죄의 존재로 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행 2:47; 고전 1:18; 고후 2:15; 벧전 1:3-9; 요일 3:2).

## 해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유혹에 빠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죄의 멍에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차츰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이 과정은 완성을 이룹니다.

## 결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죄의 삯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은 한번으로 되지만 죄의 권세와 존재로부터는 계속 구원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 구원은 한번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되는 실패와 좌절로 힘을 잃게될 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 완전히 의로움을 입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곧 성경 말씀, 기도, 성령,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를 유익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 삶의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인내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일 2:2).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롬 8:30).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퍹케 하시느니라” (롬 9:15,18).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지역 사회를 위한 한 전도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청중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당신과,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당신과,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의 지도자 회의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목하였던 바로 그 개개인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이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단 지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과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위원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심지어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까지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요 3:16; 벰후 2:1; 요일 2:2).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 28:19,20; 막 16:15,16; 행 1:8).
3.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

고 선언했습니다 (고후 5:18-21).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해 주시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싶어 합니다 (딤후 2:6).
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벰후 3:9).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선택한 사람들을 “적은 무리”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라고 말하지 않았습다 (눅 12:32).
2.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되는 소수만 선택합니다 (롬 8:29,30; 엡 1:3-6).
3.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많은 부족한 점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마 28:19; 행 1:7,8; 고후 5:18-20).
4. 물이 흘러가는 길의 방향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통치자의 결정을 주관하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 21:1). 하나님은 이 힘을 모든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소수의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롬 9:15,18; 고전 1:26-29).



## 해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한 사실을 보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온 세상”을 위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구절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림의 다른 쪽 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신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전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아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 인간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놔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소수의 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와 그의 뜻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깊이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 적용

-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 28:19,20; 행 1:8). 그래서 그는 우리가 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보다 자격이 부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  
다 심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29).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요 5:24).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눅 6:37).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 전 11:3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 5:24)고 말했습니다. 한 선교 팀의 책임자는 많은 청중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후 5:10)란 그저 케이크 조각 같은 것이어서 사람마다 받는 상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까닭은 그에게 질투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어떤 성도들이 더 많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성도들의 가르침과 공력은 불타고 천국의 문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3:12-15의 그림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는 그가 한 때 생각했던 것처럼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 5:28,29).
2.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되고 심판의 결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를 받게 됩니다 (롬 2:5-10).
3.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은 정한 것입니다 (히

9:27).

4.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야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을 것”입니다 (고전 3:12-15; 고후 5:10).

###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요 5:24).
2.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눅 6:37).
3. 자신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은 판단 받지 않습니다 (고전 11:31).
4.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롬 8:1).

### 해설

요한복음 5:28-29에서 보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믿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 앞에 서지만 저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원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너무 오만하고 고집이 세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죄를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피하게 된다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30) 라고 한 구절이 바울의 말입니다.

### 결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믿는 자들은 받을 상급에 관하여 평가를 받게되고 불신자로 죽은 사람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정한 형량을 받기 위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적용

-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각에 대해 예수님 앞에서 평가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전부 갚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장차 받을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신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실망시킬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 7

###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습니다 / 어렵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 7:14).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벧전 4:18).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자가 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고전 9:27).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길에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들어가면 결코 쫓겨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힘든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당신의 죄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당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1. 천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요 3:16; 행 16:31; 롬 5:1; 엡 2:8,9).
2.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듭남이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옵니다 (요 1:12,13; 약 1:18; 벰전 1:2,23).
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십니다 (마 11:28-30).
4. 삶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예

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 입니다 (고전 3:10-15).

5. 극복하는 삶이란 분투하는 자기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갈 5:22,23).

###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1.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합니다 (마 7:13,14).
2.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눅 13:22-30).
3. 제자가 되는 것은 갈등과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마 10:34-39, 16:24-28).
4.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자기훈련이 필요한 경주와 같습니다 (고전 9:24-27).
5. 의인은 고난을 겪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벰전 4:17-19).

### 해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뛰어난 지식이나 어려운 고행이나 커다란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에 빠진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중생은 우리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씌워준 힘든 요구와 비교하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1:28-30).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라 약하고 짐진 자들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천국에서 특별한 상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했다고 말했습니다(고전 9:24-27).

베드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그들이 겪는 고난을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영적 성장을 위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 큰 고통을 견디어야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약한 자나 짐진 자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쉬운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임재하심을 알게 함으로써 그 길이 쉽고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천국 가는 길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단련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자기를 훈련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 적용

-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약한 자와 짐진 자와 고통 받는 자에게 다가가 복음은 바로 그들과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만나 놀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오만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합니다.
-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8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자들...” (고전 1:2).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골 2:10).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벧전 2:9).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1).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빌 3:12).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고전 9:27).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이라고 불리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도 불립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거나 “흠이 없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요소들, 곧 한편으로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이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1.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롬 8:1,2).
2.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후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롬 8:15-17).
3.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 연합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전하다고 인정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롬 8:30; 엡 1:3-14, 2:4-7; 골 2:10).
4.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전하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이라 부르시며 “거룩하여졌다”

고 말씀했습니다 (고전 1:2; 빌 1:1, 4:21).

5.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과 거룩한 나라에 있습니다 (빌 3:20,21; 벧전 2:9).

###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1. 우리는 육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나쁜 죄성과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때로는 죄성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롬 7:13-25; 갈 5:17).
2.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요일 1:8-10).
3. 우리는 여전히 바로잡기 위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11:32; 히 12:10).
4.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여전히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고전 9:27).
5. 우리는 불완전하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습니다 (빌 3:12-14; 요일 3:2).

### 해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률적으로 그 위치를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엡 2:6).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다”고 했습니다(골 2:10).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됨으로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빌 3:20)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가 되었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적 위치는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롬 7:13-25), 자신들을 열심히 훈련해야 하며 (고전 9:27), 하늘에서 온전해질 때, 곧 예수님과 함께 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빌 3:12,13; 요일 3:1,2).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가 역사하신 그 결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며 “거룩하여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에 맞게 실천해야 할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며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죄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 결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바로 완전하게 구속하여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 적용

-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 그의 가족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우리의 입장을 알게되면 크나큰 위로를 받습니다.
-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로 깨달아 알게되면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죄성 (육신)을 갖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유혹에 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 5).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 1: 4).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살후 2:13).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수 24:15).  
 “...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을 받으라” (계 22:17).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죽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다만 앞으로 그를 믿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지표를 던지고 마귀는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표가 결정을 좌우한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문제 일까요?

###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1.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창 12:1-3; 17:19; 28:13-16).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

도록 택했습니다 (신 4:37; 7:6-8; 14:2; 왕상 3:8).

3.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인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눅 6:13; 요 6:70; 15:16,19) 다소의 바울을 택했습니다 (행 9:15).
4.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 얻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행 13:48; 엡 1:3-6; 살후 2:13,14).
5.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사역을 맡기려고 예레미야와 (렘 1:5) 세례요한과 (눅 1:13-17) 바울을 (갈 1:15) 택했습니다.

###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죄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그 책임을 그들 앞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30:19,20).
2.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 중 한쪽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수 24:15).
3.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바알 신 중 한쪽을 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상 18:20-40).
4.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초청하면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요 3:14-16; 딤후 2:3,4; 벧후 3:9; 계 22:17).

### 해설

하나님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나라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명기 7:6, 예레미야 1:5, 에베소서 1:4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을 미리 알고 그 사람만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앞의 구절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한 사람들을 그에게 나오게 하는 방법까지도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30:19; 수 24:15). 요한복음 3:14-18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심을 선언했지만 그는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받게 되고 이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청하여 생명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사

람만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 결론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과 섬김에 관련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의 양쪽 측면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 적용

-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임의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전을 받게 됩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안다 해도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

##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  
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  
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대하 15:2).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때에  
그를 부르라” (사 55: 6).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  
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  
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  
을 찾으리이다” (시 27:8).

“...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  
고” (롬 3:11).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니...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  
함이라” (고전 2:14).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2:14에서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 4:29; 대상 28:8,9; 대하 15:2,4,15; 예 29:13).
2.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 55:6,7)
3.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 9:10; 22:26; 24:6; 27:8; 34:4; 40:16; 70:4; 83:16; 105:4; 119:1-3).
4.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잠 28:5).

###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1. 사람은 영적으로 혼미하여 영적인 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전 2:14,15; 고후 4:4).
2.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엡 2:1).
3. 사람은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 5:9; 14:1-3; 36:1-4; 롬 3:11).
4.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 6:37,39,44; 롬 9:14-18).

### 해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사 55:6), 그들과 함께 하시며(시 27:8),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대하 15:2),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잠 28:5).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있고 자

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롬 3:10,11).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엡 2:1)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여 그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전 2:14). 로마서 9:6-33 말씀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싶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찾으라고 하시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동반하십니다.

### 적용

-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찾으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방향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odb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 현금 안내

「오늘의 양식」은 독자들의 현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쿼당 450원 이상을 현금하시면 제작비에 사용되며 문서선교사역이 확장됩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1-000710

### ■ 섬기는 분들

발행인 / 김상복    편집장 / 신표근    위원장 / 정영원

제작 / 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8

**큰형있는 구원의 신앙**

인 쇄 / 2002. 8. 1.

발 행 / 2002. 9. 1.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

## 신앙성장 시리즈 -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4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 6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11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평생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 16 **결혼의 약속**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 18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절취선

### 「신앙성장 시리즈」구독신청 및 선교헌금안내

신청 및 헌금자	성명	전 화										신금입금은행: ( )은행						
	주소	(우편번호: )																
발신 주소	주 소	전 화										신금입금은행: ( )은행						
	출석교회	(우편번호: )																
사 람	출석교회	직분										신금입금은행: ( )은행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신 청 부 수	신 청 부 수																	

####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구매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회>

외환: 026-13-33750-7      한빛: 132-05-108980  
 서울: 16301-1886909      우체국: 012773-0026681  
 농협: 001-01-214911      조흥: 308-01-137748

국민: 097-01-0199-703  
 제일: 107-10-109840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463-816  
 전화 (031)780-9565 ~ 7 FAX (031)780-9569